"BTS, 군면제 대상이냐 아니냐"…병역특혜 논쟁 재점화

빌보드 '핫100' 1위 달성 후 병역특례 목소리↑

찬성 "운동선수보다 국위선양…공정·형평 문제"

"특례 확대 부당…사익 활동에 특혜 안돼" 반론

'핫100' 후 대중문화 특례 논의 새 국면 가능성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대한민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1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병역특례 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 입영 연기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곳곳에서 논쟁도 벌어지는 모양새다.

3일 다수 시민들은 BTS 구성원들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일명 'K팝' 연예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문제는 해묵은 논란거리인데, 이번에 BTS가 핫100 1위를 달성한 뒤 재부상하는 분위기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BTS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들은 "국위선양을 한다는 면에서 BTS 같은 가수가 운동선수보다 부족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병역특례 적용은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 "BTS의 긍정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병역특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현역 입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례를 확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연예인들은 사익이 목적이지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닌데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등의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군 면제 주장 이외에 BTS 구성원의 입영 연기에 관한 여론도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병역법상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문화 부문 관련자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국제적 인지도나 영향력 등이 다른 문화·예술계 종사자 못지 않다는 점 등을 토대로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등 주장이 이어져 왔다.

병역특례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지난 1973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병역특례법)'이 신설되면서 적용되기 시작했다.

1993년 특례법이 폐지되면서 일부 달라진 점이 있지만, 여전히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이외에 공중보건의나 예술체육요원도 포괄적으로 병역특례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이들을 병역특례 대상으로 삼아 왔는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 일정 수준 이상 성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대중문화 부문은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지난 2010년께 이래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BTS는 '빌보드200' 1위에 오른 사례 등이 있다는 면에서 관련 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병역특례는 제도에 편승하거나 악용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지적되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상당하다.

지난해 정부는 예술요원 편입 인정 대회를 종전 48개에서 41개로 축소하는 조치 등을 취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BTS의 핫 100 1위 달성 이후 대중문화 부문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경기, 대회 등 성과를 공인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점 등은 여전히 한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빌보드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BTS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핫 100 1위로 데뷔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가수가 핫 100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아시아 가수로는 1963년 일본 사카모코 큐의 '스키야키' 이후 57년 만이다.

뉴시스

박혜수·NCT재현·김새론·배현성, '디어엠' 출연

5억 뷰 돌파 '연애플레이리스트' 세계관 연장선

박혜수, 재현, 김새론, 배현성이 KBS 2TV 새 드라마 '디어엠'(Dear.M)'에 출연한다.

제작사 플레이리스트와 몬스터유니온은 이들이 청춘 로맨스 드라마 '디어엠'의 주요 배역으로 캐스팅됐다고 3일 밝혔다.

드라마는 서연대학교를 발칵 뒤집어놓은 서연대 커뮤니티 글의 주인공 'M을 찾으며 벌이는 이야기를 그린다. 익명의 글에 등장한 'M'이 불러온 각 인물들의 로맨스 관계 변화가 극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예정이다.

누적 조회 수 5억 뷰를 돌파한 디지털드라마 '연애플레이리스트'의 세계관의 연장선이란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박혜수는 씩씩하고 밝은 경영학과 2학년 마주아로 분한다.

퍼주기를 좋아하는 선한 오지라퍼(참견쟁이)지만 꿈과 남자만큼은 일절 관심이 없는 자발적 모쏠(모태솔로) 캐릭터를 연기한다.

첫 연기 도전에 나선 그룹 NCT의 재현은 넉살 좋고 배짱도 좋은 컴퓨터 공학과 2학년 차민호 역을 맡았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기발한 앱을 개발하는 재주꾼으로 변신, 박혜수와 함께 12년 절친 케미까지 선보인다.

김새론과 배현성은 '연플리' 시즌4 모습 그대로 서연대 응원단 센터 서지민과 서연대 홍보대사 박하늘로 나온다. '서연대 공식 커플'로 호흡을 맞춘다.

'연플리' 이슬 작가와 KBS 2부작 뮤직드라마 '투 제니'를 연출한 박진우 감독, '회사 가기 싫어', '연애혁명'의 서주완 감독이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디어엠' 관계자는 "섬세하고 공감력 넘치는 대사와 감성 가득한 연출을 바탕으로 'M'과 얽힌 각 캐릭터들이 어떤 사랑과 고민을 하고, 치열히 경쟁하며 성장하는지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내년 상반기 첫 방송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러블리즈, 아이튠즈 탑 앨범 차트 4개국 1위

벅스뮤직 2위·지니뮤직 5위…국내 차트서도 상위권

그룹 러블리즈(Lovelyz)가 신곡 '오블리비아테(Obliviate)'로 아이튠즈 탑 앨범 차트 4개국 1위에 올랐다.

러블리즈는 지난 1일 1년 4개월 만에 컴백, 미니 7집 '언포게터블(Unforgettable)'을 공개했다. 이번 타이틀곡 '오블리비아테'는 이스라엘·노르웨이·일본·멕시코 아이튠즈 탑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미국·캐나다·영국·홍콩 등 10개국 차트에서 톱3 안에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아이돌로서의 저력을 입증했다. 국내 음원사이트에서도 벅스뮤직 2위, 지니뮤직 5위 등 상위권에 진입했다. 러블리즈의 미니 7집 '언포게터블'은 '잊을 수 없는'라는 의미를 가졌다.

'기억'에 관한 곡 여섯 트랙이 수록돼있다.

타이틀곡 '오블리비아테'는 '나쁜 기억을 지워주는 주문'이란 뜻으로, 아픈 사랑을 지우고자 하는 애절한 마음을 노래했다. 특히 멤버 류수정이 작사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반응에 감사드린다"라며 "본격적인 컴백 활동으로 오랜 시간 기다려온 팬들을 위해 좋은 무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기대 바란다"고 전했다.

손연재 "돈 때문에 리듬체조 그만둘뻔했다"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가 비용 때문에 리듬체조를 그만둘 뻔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는 최여진, 손연재, 이혜성, 유상무와 함께하는 '다시 여기 화제가'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서 MC 김국진은 손연재에게 "선수시절 돈 때문에 리듬체조를 그만둘 뻔했다는데?"라고 물었다.

이에 손연재는 "맞다. 리듬체조는 대회를 한 번 나가면 선수 본인, 코치, 심판, 트레이너, 무용 선생님 등 팀원의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한다"라며 "국가대표여도 그렇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는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정도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시안 게임을 나갔을 때 전지훈련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됐다. 수천 만원이 들었으니 큰돈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는 메달을 못 따면 그만둘 각오로 했다"라며 "지금 봐도 그 어떤 대회보다 눈빛이 살아있다. 메달을 못 따면 더이상 (리듬체조를) 못 하니까. 다행히 메달을 따서 광고 촬영을 했고, 그 돈으로 이후 대회를 나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반도', 안방에서도 통했다…VOD '기생충' 이후 최고

온라인 상영관 주간 이용순위 1위…서비스 오픈 1주차 24만건 이용

영화 '반도'(감독 연상호)가 온라인상영관 주간 이용순위 1위에 올랐다.

3일 배급사 NEW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극장 동시 VOD 서비스를 오픈한 영화 '반도'가 온라인 상영관 박스오피스 주간 1위에 등극했다.

'반도'는 지난달 24~30일 VOD 서비스 오픈 1주차에 온라인 이용건수 24만4457건을(영진위 온라인상영관 박스오피스 35주차 기준) 기록하며 안방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이는 지난 2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아카데미를 수상했던 기간(2020년 7주차)에 기록한 63만건 이후 최고치다. '부산행'을 비롯해 '신과함께-죄와 벌' '신과함께-인과 연' '택시운전사' 등의 VOD 서비스 오픈 1주차 기록을 뛰어넘었다.

'반도'는 '부산행' 그 후 4년, 폐허가 된 땅에 남겨진 자들이 벌이는 최후의 사투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로 강동원과 이정현 등이 출연했다.

지난 7월15일 개봉해 국내에서만 381만 관객을 동원했다.

아시아,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중동 등 30여개 국가에서 박스오피스 5000만달러를 돌파했다.

씨엘, 두 번째 인트로 비디오 공개

독특한 스타일의 강렬함 선사

그룹 '2NE1' 출신 가수 씨엘(CL)이 두 번째 인트로 비디오를 공개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씨엘은 3일 오후 1시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등 공식 채널에 힙합곡이 흘러나오는 새로운 인트로 비디오 영상을 게재했다.

9초 분량의 영상에서 씨엘은 독특한 스타일의 복장을 입고 나와 강렬함을 선사했다.

앞서 씨엘은 전날 프리스타일 댄스를 추는 10초 정도의 짧은 인트로 비디오를 공개,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바 있다.

두 번째 인트로 비디오로 팬들의 관심도를 끌어올린 가운데 미국 유명 매니저 스쿠터 브라운과 그의 회사인 SB 프로젝트 공식 계정에도 씨엘의 첫 번째 인트로 영상이 소개됐다.

또한 레게톤 뮤지션 제이 발빈(J.Balvin)이 '좋아요'를 눌러 이목을 끌었다.

지난해 11월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나며 홀로서기에 나선 씨엘은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 팬들과 만날 계획이다.